

구니키다 돛포(國木田獨步)의 「쇠고기와 감자(牛肉と馬鈴薯)」論

金容鉞*

目次

1. 서론
2. 청춘 이상의 좌절(挫折)
3. 냉소적 여성관의 시좌(視座)
4. '경이의 염원(念願)'에 대해서
5. 결론

1. 서론

구니키다 돛포(國木田獨步)의 「쇠고기와 감자(牛肉と馬鈴薯)」는 1901년 11월, 오사카(大阪)에서 발행되던 『소천지(小天地)』에 발표되어, 그의 제2 소설집인 『돛포집』¹⁾에 수록된 작품이다.

발표 당시의 평가는 “『쇠고기와 감자』는 제재를 청신한 주변에서 골라 착상이 대단히 재미있고, 확실히 신시대의 인물을 그리고 어떤 것에 접촉한 감이 있는 소품으로서 근래 걸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²⁾라고 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반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작품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는 평자(評者)도 있다.

「감자와 고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또 이것을 칭찬하겠지만, 나로서는 그다지 찬성할 수 없다. (중략) 이와 같은 작품 혹시나 그 하나 있어야지 단연코 두 개 있어서는 안 된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 겸임 연구원 일본근대문학

1) 國木田獨步(1904.7), 『獨步集』, 近事書報社.

2) 「十一月二月兩月の文壇」, 『小天地』, 2卷 4号, 1902.1, 初出. 인용은 『國木田獨步全集』第十卷, p.355. 이하 돛포의 일기, 시, 산문과 돛포에 관한 평론 등의 인용은 『國木田獨步全集』(國木田獨步全集編纂委員會編, 學習研究社. 1978)에 의하며 『獨步全集』이라고 줄여 표기한다. 또한 한국어 인용문은 필자의 줄임이고, 본 논문에서 「쇠고기와 감자」의 작품 인용은 『國木田獨步全集』第二卷의 작품 제목과 페이지만을 인용문 뒤에 표기한다.

다. 뫼포는 재주 있는 사람이며 분명하게 스스로 이는 ‘가치 없는 경이’의 암반 위에 ‘오류’의 성벽을 쌓아올린 것처럼, 큰 파도 한번 해안을 씻고, 보루와 벽 또한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만약 그 몽롱하고 현학적이고 기괴함의 그늘에 숨어 은근히 청신함과 기발함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교활 수단 중에 가장 증오해야 할 것이다.³⁾

「쇠고기와 감자」는 위와 같이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사카모토 히로시(坂本浩)는 “1901년이라는 시기는 이와 같은 청신한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⁴⁾라고 기술하면서, 뫼포의 「쇠고기와 감자」가 ‘청신한 문학’으로 그 당시의 문단보다도 선행하고 있었던 점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뫼포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뫼포는 「쇠고기와 감자」에 대한 비평이 자신의 진의(眞意)나 주안(主眼)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면만을 보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나중에 이 ‘소설의 주안을 논문으로 또 한번 주장해 보고 싶다’⁵⁾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쇠고기와 감자」의 주인공인 오카모토의 사상을 발췌한 듯한 「오카모토의 수첩(岡本の手帳)」(1906. 6, 『中央公論』)이 약 4년 후에 발표되는 데에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야마다 히로미쓰(山田博光)는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며 “「오카모토의 수첩」이 재미없는 것은 「쇠고기와 감자」와 같은 오카모토와 대립하는 입장의 사람들, 와타누키(綿貫)나 곤도(近藤)나 가미무라(上村)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⁶⁾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뫼포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오카모토의 수첩」이 단순히 뫼포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쇠고기와 감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쇠고기와 감자」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중 특히 뫼포의 사상을 대변하며 그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오카모토(岡本)와 그 대립하는 입장의 주변 인물들로서 가미무라(上村)와 곤도(近藤)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미무라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뫼포의 훗카이도 이주에 대한 열망과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쇠고기와 감자」의 주요한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인 곤도는 여성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뫼포가 여성에 대하여 가차 없는 경멸과 모욕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여성관의 일단을 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작자 뫼포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오카모토를 통해서 뫼포의 ‘경이의 염원(驚異の念)’ 또는 ‘경이 사상(驚異思想)’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大絃小絃」, 『文庫』 20卷 5号, 1902.7, 初出. 인용은 『獨步全集』 十卷, p.336.

4) 坂本浩(1969), 『國木田獨步一人と作品一』, 有精堂, p.154.

5) 「書簡」(1902.4.8), 『獨步全集』 五卷, p.453.

6) 山田博光(1978), 「牛肉と馬鈴薯」研究ノート, 『國木田獨步論考』, 創世紀, p.158.

2. 청춘 이상의 좌절

「쇠고기와 감자」는 작품의 전반부의 화제를 이끌고 있는 가미무라(上村)가 “비프스테이크에 감자는 당연한 반찬이야”, “이상은 바로 실제의 부속물인 것이다”(「牛肉と馬鈴薯」, p.366)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쇠고기는 실제(현실)를 나타내고 감자는 이상(꿈)을 상징하고 있다. 「쇠고기와 감자」의 주요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인 가미무라는 자신의 청춘담을 피력하는 35세 정도의 중년 신사로 지금은 홋카이도(北海道) 탄광회사의 사원이다. 가미무라는 청년 시절에 도시사(同志社)대학 출신으로 열렬한 청교도 교인으로 그의 이상과 자유의 실천장으로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것을 동경하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의 생활을 꿈꾸어 왔다는 것을 작품 속에서 가미무라는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구 홋카이도(北海道)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전도사 중에 홋카이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이야기를 들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또한 상대방은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 자연이 어땡다든지, 이시가리가와(石狩川)의 강은 도도하게 흐른다든지, 바라보는 한 숲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데에는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모로 들어 왔던 것을 종합해서 이런 상상을 그렸습니다. …… 우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숲을 개척하여 숲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여기에 팔을 뿌린다!”(「牛肉と馬鈴薯」, p.367)

가미무라가 말하는 상상적인 이야기 내용은 작자 돛포가 청춘 시절에 꿈꾸고 있었던 홋카이도로의 이주 계획과 그것이 실현된 경우의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미무라는 홋카이도에 대한 이주의 동경의 꿈을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접 실현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또한 가미무라가 홋카이도 이주의 목적이 ‘청교도로서 임한다’고 하는 신앙에 의거하고 있는 것처럼, 작자 돛포도 “홋카이도 행(北海道行)은 자유 독립 신앙을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가 더욱 치열하다”⁷⁾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돛포의 홋카이도 이주 목적은 신앙의 실천을 위한 경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마침내 가미무라는 자신의 꿈을 찾아서 홋카이도로 떠나는 우에노(上野)에서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나는 졸업하자 1년 정도 도쿄(東京)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지만, 단연코 홋카이도로 갔을 때의 기분이란 이 이상 없었지. 웬지 이런 바보 녀석들! 이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7) 「欺かざるの記」(1895.7.3), 『獨歩全集』七卷, p.307.

우에노(上野)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다. 칙-하고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도쿄 쪽을 향해 침을 내뿜었다. 그리고 뒤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쳐서 남몰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로!(『牛肉と馬鈴薯』, p.370)

가미무라는 이상의 실천이라고 한 큰 포부를 안고 홋카이도 이주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러나 가미무라는 홋카이도에 건너오기 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그곳의 겨울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이주한지 5개월 만에 그곳 생활을 접고 만다. 이상의 실천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하여 좀더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작품으로 「소라치가와 강변(空知川の岸辺)」(1902.11~12, 『青年界』)이 있다. 거기에서 돗포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남자가 뜻을 세워 이상을 추구하여 지금이야말로 삼림 속에 자유의 천지를 구하려고 원했을 때,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나는 마음을 굳게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요컨대 이상은 냉랭한데 인정은 따뜻하고, 자연은 냉엄해서 친숙해지기 어려운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애뜻해서 동지를 틀기에 적합하다.⁸⁾

이상을 추구하여 깊은 산 속에 자유 천지를 바라고 굳세게 실천하리라고 다짐해 보지만, 자연은 냉엄하여 적응하기 어렵고 반대로 인간 세상은 애뜻하고 살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가미무라가 현실로 복귀한 것은 자연의 냉혹함에 견디지 못하고 이상 실천을 포기한 것이다. 돗포가 자신의 이상 실천의 신천지로서 홋카이도로 건너왔지만 토지 선정 단계에서 그의 계획이 중단되었다.

높은 이상의 실천장인 홋카이도로 떠났던 가미무라는 자신의 청년 시절의 이상을 완전히 버리고 지금은 현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돗포의 어떤 취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요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인 곤도(近藤)는 다음과 같이 가미무라를 비판한다.

가미무라군 따위는 애당초 감자당에서 나중에 쇠고기당으로 변절한 것이다. 즉 의지가 나약한 것이다. 요컨대 제군은 시인이다. 시인이 타락한 것이다.(『牛肉と馬鈴薯』, p.372)

곤도가 말하는 ‘변절’, ‘나약한 의지’, ‘타락’과 같은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여 가미무라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돗포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상당히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또한 국회의원(代議士)의 선거를 위해 운동한 적도 있었다. 돗포는 이와 같은 경험을 되살려 정치적인 언사를 과감히 작품에 도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곤도의 가미무라에 대한

8) 『空知川の岸辺』(1902.11~12), 『獨歩全集』 三卷, p.14.

비판에 대해서 기타노 아키히코(北野昭彦)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곤도의 가미무라 비관은 그러한 돗포의 일면까지도 가미무라 상(像)에 투영하고, 이것을 돗포의 또 하나의 분신인 곤도 측에서 스스로 자기 비판한다고 하는 표출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⁹⁾

즉, 가미무라는 돗포의 일면을 투영하고 있는 분신으로서 가미무라가 이상의 실천장으로써 동경하고 있던 훗카이도로 이주하여 반년도 못 견디고 현실 세계로 되돌아 온 것은 돗포 자신의 청춘 시절에 경험했던 한 좌절로서 그의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돗포는 훗카이도 이주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 수 없었던 청춘 시절의 한 좌절을 「쇠고기와 감자」의 주요 등장인물인 가미무라의 언설을 통해 반영시키며 곤도로 하여금 과감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돗포가 자유 이상의 실천장으로써 훗카이도 이주를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돗포는 결국 훗카이도의 현지답사의 단계에서 중단되었던 사실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묵혀 두고 회한의 정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돗포는 훗카이도 이주의 좌절을 가미무라를 통하여 대변하게 하며 또 한 사람 돗포 자신의 취미를 나타내고 있는 곤도로 하여금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돗포가 청춘 시절에 꿈꾸었던 훗카이도 이주에 대한 열망을 가미무라에게 투영하여 다시 한번 그 추억을 돌이켜 보는 한편으로, 청춘 시절의 뼈아픈 이상 실현에 대한 좌절을 음미하며 곤도가 심하게 비판한다는 설정을 함으로써 돗포 자신의 젊은 시절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3. 냉소적 여성관의 시좌(視座)

「쇠고기와 감자」의 주요한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인 곤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춘 시대의 이상을 버리고 현실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가미무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심하게 공박한다.

“나는 감자당도 아니고 쇠고기당도 아니다! 가미무라군 따위는 애당초 감자당에서 나중 에 쇠고기당으로 변절한 것이다. 즉 의지가 나약한 것이다. 요컨대 체군은 시인이다. 시인이 타락한 것이다. 때문에 무턱대고 코를 실룩실룩 거리며 쇠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려 간다. 그런 꼴볼견이란 없을 것이네!”(「牛肉と馬鈴薯」, pp.372~373)

9) 北野昭彦(1980), 『國木田獨歩「忘れ得ぬ人々」論他』, 櫻楓社, p.123.

곤도가 이와 같은 비판의 근거로서 내세운 것은 “나란 사람은 쇠고기를 처음부터 좋아한 것이다, 주의고 뒤고 그런 따위는 없었다.”(『牛肉と馬鈴薯』, p.373)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처음부터 이상이나 꿈을 추종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타고난 현실주의자로서 일관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곤도는 여성에 대해서도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곤도는 “여자라는 동물은 3개월이 지나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모두 싫증을 내버린다. 부부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붙어 있다”(『牛肉と馬鈴薯』, p.378)라고 말하며, 여성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연애관과 결혼관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곤도는 오카모토의 연애담을 듣고서 여성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비판을 가하며 다음과 같이 단정한다.

가미무라군에게 만약 상대가 있었다면 훗카이도 땅을 밟기 전에 변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라는 것이 도저히 감자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천적인 비프스테이크(beefsteak)당이다. 마치 나와 같은 것이다. 여자가 감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따위는 거짓이야(『牛肉と馬鈴薯』, p.379)

이와 같은 곤도의 여성관은 여성에 대한 강한 불신감뿐만 아니라 경멸감조차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곤도의 여성관에는 분명하게 작자 뎡포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뎡포의 굴절된 여성관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그가 두 번째로 발표한 단편소설 「소식(おとづれ)」(1897.11, 『國民之友』)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 작품 속에서 “그저 얕은 지혜와 나약한 의지,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이 강한 것은 여자의 성질인 것 같다”고 하며, 이어서 “여자가 만일 사랑의 빛을 그 얼굴에 받아 미소 지을 때는 꽃처럼 빛나는 선녀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의 빛에 등을 돌리고 도망갈 길을 찾아 허둥대는 모습은 세상에 이것만큼 추한 것도 없을 것”¹⁰⁾이라고 화자를 통해서 거침없이 여성의 양면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인 뎡포의 여성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쇠고기와 감자」에서 뎡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했던 사사키 노부코(佐々城信子)와의 연애를 연상케 하는 연애담을 오카모토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토로하고 있다. 뎡포의 사상을 대변하는 주인공 오카모토가 청년시절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중에서 “어느 날 내가 그녀 집에 갔더니 양친은 부재중이고 단지 가정부와 그녀와 12살인 여동생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중략) 낮은 소리로 창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나는 마루에 앉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牛肉と馬鈴薯』, p.375)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것은 뎡포와 사사키 노부코의 연애시절 당시의 사사키가(佐々城家)의 환경과 관계를 연상시키는 한 부분

10) 「おとづれ」(1897.11), 『獨歩全集』二卷, p.51.

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오카모토는 오사카에 양과 사랑에 빠진다. 둘이서 홋카이도로 건너가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러 고향에 돌아가 있는 동안에 오사카에 양은 병으로 죽게 된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돗포의 마음속에는 노부코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남아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돗포는 노부코와의 결혼 실패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처를 받았다. 그리하여 돗포는 노부코에게 받은 상처를 떨쳐 내지 못하고 그의 몇몇 작품을 통하여 여성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의 하나는 돗포가 전치였던 노부코에 대한 원망을 언제까지나 그의 가슴 한편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돗포가 본격적으로 여성에 대한 멸시 내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곤도의 연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돗포가 여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랄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묘사하여 발표한 작품이 「가마쿠라 부인(鎌倉夫人)」(1902.10~11, 『太平洋』)이다. 돗포는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노부코를 모델로 한 듯한 여주인공인 스키 아이코(杉愛子)를 가리켜 “가마쿠라 부인은 독부일까? 하이컬러 독부일까? 나는 자네들의 소위 본능 만족주의의 챔피언이라 생각하는 것으로서 고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¹¹⁾라고 매도하며 끝맺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본능만족주의의 챔피언’이라는 표현은 곤도가 말하는 ‘여자리는 동물’이라는 것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돗포의 뇌리에는 자신을 매정하게 버리고 떠나버린 전치인 노부코(信子)라는 여성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악마(惡魔)」(1903.5, 『文芸界』)의 화자이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우라 다케오(布浦武雄)를 여주인공인 기미코(君子)는 처음에 좋아했지만, 도쿄에서 귀성한 아사미 겐스케(淺海謙輔)를 보자 그녀의 마음은 바로 돌변해 버린다.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온 젊은 전도사 오마 도시오(尾間利雄)가 부임하여 오자 그녀는 난해한 신앙심과 신앙에 대한 회의를 피력하던 아사미에게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마 전도사에게 마음이 기울어 호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기미코의 연애 상대가 다음에서 다음으로 변해가지만, 그녀의 의사는 무시되어 억지로 후우라의 친구에게 시집 보내진다. 시집가서 변해 있는 기미코는 작품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기미코(君子)에게는 지금은 한 아이가 생겨서 대단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신의 사랑은 잃어버린 것 같다. 예수교의 ‘예’자도 지금은 없어졌다. 내가 때때로 아사미 겐스케(淺海謙輔)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무렵은 재미있었다고 할 뿐.¹²⁾

위와 같이 변해버린 기미코를 통하여 “여자가 감자(이상)를 좋아한다고 하는 따위는

11) 「鎌倉夫人」((1902.10~11), 『獨步全集』 二卷, p.522.

12) 「惡魔」(1903.5), 『獨步全集』 三卷, p.232.

거짓말이다”(『牛肉と馬鈴薯』, p.379)라고 하는 곤도의 독설에 가까운 표현을 뎡포는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곤도가 여성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키토 미쓰요시(瀧藤滿義)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곤도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한 인생관도 작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단지 그것을 곤도와 같은 늠름하고 건실한 생활자에게 맡긴 것은 뎡포의 「취미」 혹은 「원망」의 표현이다.¹³⁾

곤도의 언설은 다름 아닌 작자 뎡포의 여성관을 대변하고 있으며, 곤도와 같이 늠름하고 확고한 생활자로서 내세운 것은 뎡포의 ‘취미’ 혹은 ‘원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뎡포가 자기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곤도에게 자신의 여성관의 일면으로서 여자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굴절된 여성관을 갖게 된 동기와 원인으로는 천신만고 끝에 결혼에 이른 노부코의 돌연한 가출과 이혼으로 파경을 맞은 쓰라린 경험과 충격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또한 그녀에게 미련을 떨치지 못한 뎡포의 내부의 문제도 얽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곤도가 말하는 ‘여자라는 동물’ 혹은 『병상록(病牀錄)』에서 “여자는 금수이다”¹⁴⁾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뎡포의 여성관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뎡포가 접했던 특정한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뎡포의 내부에는 여성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곤도의 언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4. ‘경이(驚異)의 염원(念願)’에 대해서

「쇠고기와 감자」의 주인공인 오카모토는 ‘쇠고기당도 감자당도 아니다’라고 하며, 그 이유로 ‘이상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이상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카모토는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먼저 오카모토는 사랑하는 소녀와 함께 훗카이도 이주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향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놀라서 챙길 것도 챙기지 못하고 상경해보니 소녀는 죽었습니다”(『牛肉と馬鈴薯』, p.380)고 하며 자신의 연애 상대인 소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말한다.

오카모토(岡本)는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는 소녀에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13) 瀧藤滿義(1986), 「喫驚したいということ-『牛肉と馬鈴薯論』, 『國木田獨歩論』, 塙書房, p.191.

14) 『病牀錄』(1908), 『獨歩全集』九卷, p.53.

이야기하고, 영웅이나 성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야망을 이야기하고, 자연 속에 투신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그것들을 모두 부정한다. 그런 후에 오카모토(岡本)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으로써 ‘깜짝 놀라고 싶다’는 것을 밝힌다. 이것을 듣고 있던 등장인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이 깜짝 놀라게 하면 팔꼭질이 멈춘다고 하지만, 아무튼 가만히 있어도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데에 일삼아 놀라고 싶다고 하는 것도 유별 나는군, 하하하하”라고 와타누키는 그 똥똥한 배를 움켜잡았다.
“아니 나도 놀라고 싶다고 하지만, 역시 단순히 그렇게 말했을 뿐이어요. 하하하하”
“단지 말했을 뿐인가. 아하하하하”
“단지 말했을 뿐이라는 것인가. 히히히히”
“그래요! 단지 소원을 말해 보는 정도이군요. 핫핫핫핫”(『牛肉と馬鈴薯』, p.388)

오카모토가 말하는 것을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일소(一笑)에 부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다.

오카모토가 말하는 ‘이상한 소망(不思議な願い)’이란 우주의 신비에 접해 진정한 마음으로 놀라고 싶다는 것으로 작자 돛포의 ‘경이의 염원(驚異の念)’ 또는 ‘경이 사상(驚異思想)’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돛포의 문학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이의 염원’을 중심으로 철학적인 이론도 고려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찍이 돛포의 사상 문제에 대해 가타카미 노비루(片上伸)는 「구니키다 돛포(國木田獨歩)」라는 논문에서 돛포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돛포는 시인 소설가로서 인생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을 생각하고, 또 널리 인간의 생활을 생각했다. (중략) 그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철학을 필요로 하고, 또한 스스로 그것을 만드는 것에 노력한 사람이다. 그가 즐겨 쓴 말로 말하면, 그는 철학의 필요를 통감하고, 또한 스스로 만든 철학을 통감 체득하려고 발버둥친 사람이다.¹⁵⁾

위의 ‘철학의 필요를 통감’하고, ‘철학을 통감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은 돛포 사상의 하나의 커다란 정신적 지주였던 ‘경이 사상’을 철학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토 노부하루(齊藤信治)는 『철학초보(哲學初歩)』라는 철학개론 안에서 철학의 근원으로서 ‘1. 경이의 염원, 2. 회의, 3. 예외자 의식’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오카모토가

15) 片上伸(1910.1), 『早稻田文學』 50号, 初出. 인용은 「國木田獨歩」, 『近代文學鑑賞講座 國木田獨歩』, 角川書店, 1977, p.221.

말하고 있는 ‘경이의 염원’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에 착안하여 뉘텐의 사상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기로 한다.

사이드는 ‘경이의 염원’에 대해서 니체(F. Nietzsche 1844~1900)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유로워진 지성은 사물을 관조한다. 일상적인 것은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지성 앞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제로서 나타나게 된다. 삼라만상의 근원에 직면해서 경이 — 이것이야말로 철학적 충동의 진실한 상징이다.” 여기에 말하는 자유로워진 지성이란, (중략) 일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갓난아이와 같은 적나라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우주에 직면하는 지성, 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단지 무구한 순진한 자유로워진 지성만이 삼라만상의 근원에 직면해서 경이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¹⁶⁾

순진무구하고 자유로운 지성만이 삼라만상의 근원에 직면하여 ‘경이의 염원’을 감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이의 염원’이 철학의 유일한 근원이며 “이것 이외에 철학의 근원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오카모토가 「쇠고기와 감자」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경이의 염원으로서 이 우주를 우러러 보며 서 있고 싶은 것입니다. (중략) 실로 이 천지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자연스럽게 발했던 심령의 외침이다. 이 물음 그것이 심령의 진정한 목소리이다.

(『牛肉と馬鈴薯』, p.386)

그런데 양자의 경이의 염원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이드는 철학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경이의 염원’을 지성적이고 이론적으로 감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오카모토의 주장은 오히려 지성과 이론으로서는 감득할 수 없는 것으로 부정하며, 자신 존재의 근원을 추구하며 그것의 지속성과 연속적인 것을 내세운다. 이것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느끼는 깜짝 놀란다는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감정과도 구별되는 바이다. 오카모토가 말하는 ‘경이의 염원’을 감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는 이상한 소망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카모토의 주장이 아니라 뉘텐 사상의 일관된 표출의 하나에 불과하다.

16) 齊藤信治(1973), 「哲學の根源」, 『哲學初歩』, 倉元社, p.53.

돗포는 병이 들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대술(代述) 형식으로 쓰인 『병상록(病牀錄)』의 「예술관(芸術觀)」에서 다음과 같이 ‘경이의 염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저 「쇠고기와 감자」에서 아내를 범하게 하고, 자식을 잡아먹히게 하고서까지라도 여전히 구하려 하고 원했던 소망, 즉 일체의 허위와 악몽을 떨쳐버리고 진실, 충심으로 우주 인생의 비의(秘義)에 경탄하려고 원했던 염원은 내 일관된 소원이다.¹⁷⁾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돗포에게 있어서 하나의 절실한 소원이었던 ‘경이의 염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라, “돗포 후반생을 통하여 추구”¹⁸⁾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이의 염원’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죽음에 대한 각성은 「쇠고기와 감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카모토의 꿈을 통해 그려져 있다.

죽은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서 어두운 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생각지 않고 “설마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나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 명이면 백 명, 현재 남의 장례식에 참례한다든지, 부모를 여윈다든지 아이를 잃거나 해도, 역시 자기가 죽은 후, 지옥의 문에서 설마 내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외쳐서 귀신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죽속이겠지요. 하하하하하하.(「牛肉と馬鈴薯」, pp.387~388)

오카모토는 꿈속에서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그것을 통절하게 자각했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자각하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자신의 죽음을 자각할 수는 있어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는 없다. 여기에 오카모토, 아니 작자 돗포의 고뇌가 있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인 오카모토 세이후(岡本誠夫)가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후 ‘단지 말했을 뿐이야, 도락이야’라고 말하면서 작품 마지막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느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경이로운 자신의 진정한 존재감의 자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돗포는 죽음에 대해서 『병상록(病牀錄)』에서 “죽음이라는 대사실에 직면한 사람이 되고서야 비로소 인간의 생을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¹⁹⁾라 말하고 있다. 또한 “인생의 유일한 경악은 아마 죽음 이외에 없을 것이다. 나는

17) 「病牀錄」(1908), 『獨步全集』九卷, p.73.

18) 平岡敏夫(1983), 『短編小説作家 國木田獨步』, 新典社, p.159.

19) 「病牀錄」(1908), 『獨步全集』九卷, p.28.

이전에 이것을 「쇠고기와 감자」 안에 적었다”²⁰⁾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절실한 자각을 통해서 자기의 진실된 실존을 인식하려고 한 의도로서 이 작품으로 구현시켰다는 것이다.

돗포는 ‘경이의 염원’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절실한 자각이라는 철학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진정한 실존의 자각을 원했던 것이다. 이 실존의 자각이야말로 돗포가 그의 전인생을 걸고 추구해 왔던 것은 그 자신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돗포는 독특한 토론 형식과 구성으로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 「쇠고기와 감자」이라고 생각한다.

5. 결 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쇠고기와 감자」의 주요 등장인물로서 가미무라·곤도·오카모토 등을 중심으로 작자 돗포가 말하는 성격과 취미가 어떻게 투영되고, 작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미무라가 이상의 실천장으로 동경하고 있던 홋카이도로 이주하여 반년도 못 견디고 현실 세계로 되돌아 온 것은 돗포 스스로의 청춘의 좌절로서 돗포 내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돗포는 홋카이도 이주의 계획이 끝까지 추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청춘 시절의 한 좌절을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인 가미무라를 통해 투영시키면서 곤도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곤도의 언설은 다름 아닌 작자 돗포의 여성관을 대변하고 있으며, 곤도와 같이 늙름하고 확고한 생활자로서 내세운 것은 돗포의 ‘취미’ 혹은 ‘원망’의 표현이다. 돗포가 자기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곤도에게 자신의 여성관의 일면으로서 여자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은 굴절된 여성관을 갖게 된 동기와 원인으로서는 천신만고 끝에 결혼에 이른 사사키 노부코의 돌연한 가출과 이혼으로 파경을 맞은 쓰라린 경험과 충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돗포는 노부코와의 결혼 실패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상처를 받았다. 그리하여 돗포는 노부코에게 받은 상처를 떨쳐 내지 못하고 그의 몇몇 작품을 통하여 여성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의 하나는 돗포가 전처였던 노부코에 대한 원망을 언제까지나 그의 가슴 한편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돗포가 본격적으로 여성에 대한 떨쳐 내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곤도의 언사를 통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前掲, p.24.

오카모토의 연애도 작자 獨步 경험의 하나의 발로로써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허구화가 가미되어 표현되었다. 즉 노부코와의 연애 체험을 獨步가 윤색하여 허구화시킨 것이다.

철학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경이의 염원’을 지성적이고 이론적으로 감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일시적이고 찰라적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오카모토의 주장은 오히려 지성과 이론으로서 감득할 수 없는 것으로 부정하며, 자신 존재의 근원을 추구하며 그것의 지속성과 연속적인 것을 내세운다. 이것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느끼는 깜짝 놀란다는 찰라적이고 일시적인 감정과도 구별되는 바이다. 오카모토가 말하는 경이의 염원을 감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는 이상한 소원으로써 취급하였다.

獨步는 ‘경이의 염원’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절실한 자각이라는 철학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진정한 실존의 자각을 원했다. 이 실존의 자각이야말로 獨步가 그의 전 인생을 걸고 추구해 왔던 것이다. 또한 그 자신의 문제인식으로 설정하고 독특한 토론 형식과 구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 「쇠고기와 감자」이었다.

【參考文獻】

- 芦谷信和(1991) 『國木田獨步』, 有精堂, pp.79-112.
- 鎌倉芳信(1974.11) 「『ある女』論—モデル問題を中心に」, 『日本文學』 23-11, pp.68-78.
- 北野昭彦(1980) 『國木田獨步「忘れ得ぬ人々」論他』, 櫻楓社, p.123.
- 齊藤信治(1973) 「哲學の根源」, 『哲學初歩』, 倉元社, pp.45-68.
- 瀧藤滿義(1986) 『國木田獨步論』, 塙書房, p.191.
- 中島健藏(1963) 『國木田獨步 <近代文學鑑賞講座(7)>』, 角川書房, pp.329-364.
- 野山嘉正(1991.2) 「牛肉と馬鈴薯—岡本の思想について—」, 『國文學解釋と鑑賞』, 56-2, 至文堂, pp.92-95.
- 平岡敏夫(1983) 『短編小説作家 國木田獨步』, 新典社, pp.157-161.
- 山田博光 注釋(1970) 『近代文學大系 第10卷 國木田獨步集』, 角川書店, pp.150-174.
- 山田博光(1978) 「牛肉と馬鈴薯」研究ノート, 『國木田獨步論考』, 創世紀, pp.149-165.

要 旨

本稿では、「牛肉と馬鈴薯」の主要登場人物として上村・近藤・岡本などを中心にして作者獨歩が言っている性格と趣味が彼らにどのように投影されて、作者の意図がどこにいたかを察してみた。上村は理想の實踐場として憧憬していた北海道へ移住して、半年も耐えずに現實世界へ戻ってきた。獨歩は北海道移住の計畫を終わりまで推進できなかった彼自身の青春時代の一つの挫折を作品の主要登場人物である上村に投影させてそのことに對する果敢な批判をしている。

「牛肉と馬鈴薯」に登場する人物の中で一番個性的な性格の持ち主が近藤である。近藤は女性に對して、たいへん冷笑的かつ攻撃的な發言をしている。それは他ならぬ獨歩自身の女性觀が表われている。獨歩がこのような屈折された女性觀を持つようになった契機としては、前妻であった佐々城信子の突然の失踪によって大きな衝撃を受けたことに起因していたと見られる。また、その一方で作者獨歩は主人公岡本の戀愛を通じて信子との戀愛體驗を潤色して虚構化させて描いている。

岡本が言う<不思議な願い>として<驚異の念>は一時的・瞬間的なことではなく、獨歩が死を目の前にしていた最後の瞬間まで渴望していたと見られる。こういう驚異感を体得することで獨歩は他の人と區別できる独自の考えの所有者であることを前面に押し出そうとした。すなわち獨歩は彼自身の独自の道を歩もうとした念願の表出として彼の筆名を<獨歩>であることから察することができる。獨歩は<驚異の念>をもって彼自身の死に對する切實な自覺という哲學の根源的な問題として眞の實存の自覺を願った。この實存の自覺こそ、獨歩が彼の人生の後半生をかけて追求してきたことであった。それを獨特の討論形式と構成とをもって文學作品として昇華させて形象化した代表的な作品の一つが「牛肉と馬鈴薯」であったと言える。

キーワード：驚異の念・女性觀・實存・現實・理想・青春・北海道

투 고 : 2005. 2. 28
1차 심사 : 2005. 3. 12
2차 심사 : 2005. 4. 2

住 所 :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2동 일신아파트 101동 1705호
電 話 : 062-446-5553 휴대전화 : 010-4606-5535
e-mail : gabkim@chonnam.ac.kr